

# 임실치즈테마파크 유럽형 장미원 조성

### 임실군, 축제 활성화 방안 모색... 전국 우수사례 벤치마킹

임실군이 올해 완공 예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유럽형 장미원 등의 운영 및 축제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나섰다.

군은 최근 심 민 군수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 등이 함께 대표 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운영과 관련,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장미축제 현장을 보기 위해 벤치마킹을 다녀왔다.

심 군수를 비롯한 관계부서 담당 공무원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 위치한 삼척 오십천 장미공원에 방문하여 장미공원을 둘러보며, 우수한 식재 관리법 및 생육 관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삼척 오십천 장미공원은 2009년 조성

을 시작으로 오십천을 따라 길게 이어진 8만4,730㎡ 면적으로 장미 222종 총 15만9,000여주가 식재되어 있는 동해안 최대 장미꽃단지다.

올해 삼척 장미축제는 꽃길런, 장미성 꾸미기 등 이색적이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버스킹공연 등으로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호평을 받았다. 또한, 서울 중랑천 장미공원, 울림팍공원 장미원, 서울대공원 장미원을 추가 방문하여 지역 특성과 시민들의 수요에 맞게 장미원을 구성, 운영하는 정보를 수집했다.

군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하여 올해 완공 예정인 유럽형 장미원의 장미원 운영 관리 및 축제 프로그램 등 축제 활성화 벤치마킹을 통하여 얻은 우수 사례를 접목할 예정이다.

현재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에는 정원 장미 100여종 2만4,000여주에 대한 개화가 시작되면서 관광객들의 눈이 즐거워지는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 완공된 사계절 장미원 1만㎡ 면적에 90종 1만주를 운영하며 예쁜 꽃망울로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완공 예정인 유럽형 장미원 3만8,705㎡ 면적에 97종 1만4,000여주의 장미를 식재하여 봄, 여름, 가을 동안 감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이곳에 장미가 가득 채워지면 오는 2026년 개최 예정인 장미축제를 대표적인 포토존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 민 군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임실군을 대표하는 관광지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활짝 핀 장미에 꼭 빠져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수, 전북비전포럼 회원 대상 초청 특강

### 최영일 군수, 순창 복지정책 소개 미래발전 위한 기업 투자 강조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난 24일 순창 쉼랜드에서 개최된 전북비전포럼(이사장 두완정) 워크숍에서 '군민 행복도시 순창'을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이번 특강은 순창 쉼랜드에서 워크숍을 진행한 전북비전포럼이 최영일 순창군수를 강연자로 초청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최 군수는 전북비전포럼 회원 100여명 앞에서 △청정 자연을 맞보는 산림치유 관광지 조성 △도시민 정착 지원정책 추진 등 민선 8기 순창군의 비전 및 군정 철학에 대해 열정적인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맞춤형 보편적 복지 실현 △둔버는 농업 실현 등 보편적 복지정책을 실현하며 최근 인구 증가라는 기적 을 이뤄낸 사례를 들어가며 미래 순창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난 24일 순창 쉼랜드에서 개최된 전북비전포럼 워크숍에서 '군민 행복도시 순창'을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군의 밝은 청사진에 대해 언급했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의 미래발전을 위해 기업 투자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순창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장류산업 등 장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전북비전포럼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도움이 당부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업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준 두완정 이사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오늘 이 자리가 순창에 투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순창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 정리

남원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2024년 1기분 미납액 및 전년도 체납액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이 달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독촉 고지 대상은 올해 3월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체납분인 총 7,820건, 2억3,700만원으로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또는 은행 방문 없이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가능하며 자동이체 신청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나 환경과 방문하여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 상

황 등을 확인해 자동차에 대한 압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박영재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압류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임에 따라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 이백면,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 돌봄망 구축·나눔 문화 확산·이웃사랑 실천

남원시 이백면 행정복지센터는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모든 면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1일 1가구 소통 행정을 추진, 시정 소식 및 현안 사업 홍보, 주거환경 점검 및 개선, 공적서비스 연계,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건의 사항 청취 등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주요 시책사업 중 '안전 이백! 돌봄망' 구축은 지속적인 안부 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 및 고위험 취약계층(치매노인, 발달장애인) 170가구에 비상연락망 부착, 이백과출소 연계 14명 지원(사진) 등록, 보건지소 치매 등록 여부 확인, 치매 관련 서비스 연계 등 모든 면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강화된 지역돌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나눔 문화 확산 및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복지허브와 지정기탁 모금(월50명) △현주네집빵 △지흥이네반찬기게 △서남환경 △오가네참부 각 △해나리푸드 △그린테이블 △이백교회 △이백백제약국과 협약해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해 8개 시책사업과



연계,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주민공감대 형성 등 지역복지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특히 면에서는 남원노인복지관 정기 후원금(CMS) 300만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람나눔실천 배분사업 500만원, 이백면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비 100만원 등 총 900만원으로 화상실 보수,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안동준 이백면장은 "앞으로도 소외되는 가구가 없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소통행정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실시

임실군이 공중위생 향상과 목적호 등 관내 수질 환경을 보전하고자 2024년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계획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장소, 야영장, 목적호 인근지역 등을 5월부터 11월까지 청소 일일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정화조 등 청소 일일은 하수도법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화조 등 청소 의무를 현수막(5월~6월), 이장회보(5월~11월), 우편발송(8월, 12월) 등을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들에게 알리는 계획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은 목적호 인근지역과 2023년도 지도·점검

방류수 수질검사 부적합대상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등을 고려해 50개소를 선정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 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에 따라 5월부터 11월까지 점검한다.

이번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운영·관리 상의 미흡한 부분 등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기타 부적합 사항에서는 하수도법 관련 규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진행 중'

남원시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지난 4월 22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 시민이 참여해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예방활동으로, 눈에 보이는 시설뿐만만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부분까지 확인하는 종합적인 안전점검이다.

이 기간 남원시에서는 주민신청제 9개소를 포함한 총 10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정밀 점검 및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리주체에 후속 조치 안내 및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 통

### 순창군, 제66회 밀양아리랑 대축제 관공홍보 마케팅 추진

순창군은 지난 5월 익산 서동 축제에 이어,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밀양강변에서 열리는 제66회 밀양아리랑대축제장에 순창군 홍보부스를 운영해 방문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군은 밀양아리랑대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제19회 순창장류축제 리플릿과 주요 관광지 소개책자를 나누어 주면서 순창의 대표 축제인 제19회 순창장류축제와 강진산, 채계산 출렁다리, 용골산 하늘길, 발호테마파크 등 주요 관광지를 소개했다. 아울러 순창투브 구독 이벤트를 진행하여 순창고추장을 홍보하고 순창군의 소식을 널리 알려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장류 캐리더 상품도 소개하여 순창에 대한 호기심을 한층 더 증폭시켰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 금계국길 인기몰이

남원시가 남원대교~금곡교에 이르도록 조성한 금계국이 하늘을 춤추는 듯한 향연을 펼치며, 선선한 아침과 저녁 산책 코스(라이더 포함)로 인기몰이하고 있다.

황금빛 금계국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꽃으로, 5월 개화해 9월까지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여름꽃이자 별이 잘 들고 건조한 곳에서도 강한 번식력을 갖는 특징이 있다.

꽃의 이름이 '금계국'으로 지어진 전설로 '옛날에 금으로 만든 닭을 가지고 있으면 천하를 가질 수 있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금(金)닭을 찾아 나섰으나 금으로 만든 닭은 볼 수가 없었다. 이에 금 비둘기를 닭은 노랗고 귀한 꽃을 발견, 꽃잎이 금색이고 끝이 닭의 벼슬처럼 여러 개로 갈라져 있어서 사람들은 이 꽃을 금닭으로 대신하려고 마음먹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